

News

가계 대출 누르자 기업 대출 '깡충'...연체율 관리 비상

이투데이

4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16.9조원. 지난해 대비 19.6조원 증가한 수치로 2019년 같은 기간 늘어난 것(9.6조원)과 비교해 2배가량 큰 규모
4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보다 6.6조 증가했는데,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에 따른 은행들의 기업 대출 증가 전략 채택이 주요 원인

전세대출 연내 200조...은행권, 속도조절 위해 문턱 높여

이데일리

지난 4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금액은 17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 올 들어 전세대출이 매달 3조원 안팎 증가하고 있어 연내 200조원 돌파 가능성 증가
은행권은 지나친 전세대출 수요로 금리 인상, 전세대출 중단 사례 등으로 수요조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5대 은행 '지자체 금고지기' 출혈 경쟁

매일경제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기가 되기 위해 지자체에 낸 출연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자체 금고 선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 지자체 금로 유치시 매년 수천억~수십조 원 규모 지자체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에 '코로나 대출 실적' 반영한다

뉴시스

은행의 코로나19 대출 관련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금융당국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반영. 은행권의 지원 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인센티브 방안이다.
은행들은 이번 평가가 지자체 금고 선정과 직결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예산을 예치금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업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공공 의료데이터 보험사 활용 연이은 취소 통보...보험 헬스케어 '좌초' 위기

전자신문

보험회사가 공공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던 시도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금융 당국까지 나서서 보험업권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생명윤리위원회(IRB)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간 계류 신세가 됐기 때문

손보사, 자본 5조원 증발 위기 벗어났다

데일리안

보험사들에 대한 새 자본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전액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재무 상태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10조원에 달하는 비상위험준비금 중 5조원에 달하는 돈이 자본에서 증발할 위기를 방지하게 됐다.

'토스증권 돌풍'...비바리퍼블리카 3천억 투자유치 추진

매일경제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증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 또한 비바리퍼블리카의 매출액이 급증해 5조원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기를 목표로
토스증권은 자본금 320억원으로 출발했으나 몇 차례 증자를 거쳐 570억원까지 늘었다. 시장에서는 토스증권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개미의 힘... 10대 증권사 수수료 수익 97% 꺾음

디지털타임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 1분기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투자중개 수수료 수익은 1조2132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7.1% 급증
국내외 투자중개 수수료 수익 급증이 주요 원인. 1분기 국내 일평균 증시거래대금은 33.3조원으로, YoY +122.8%. 해외 투자중개 수수료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항목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